

플라톤의 『소피스트』에서 제기되는 두 가지 주도적 물음과 그 해명*

김재현
(서울대 철학과)

1. 들어가며

『소피스트』는 플라톤의 후기 저술에 속하는 대화편으로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피스트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프로타고라스』나 『고르기아스』와 같이 주요한 소피스트로서 거론되는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아우르는 ‘소피스트’라는 이름을 그대로 대화편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는 단지 긴 대화의 시작점을 마련하는 작은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어서 소크라테스가 대화의 중심이 되던 많은 대화편들과 차이를 보인다. 다른 대화편들에서 소크라테스가 수행하던 역할을 『소피스트』에서 대신 수행하는 이는 바로 엘레아에서 온 손님이다. 그리고 엘레아는 바로 파르메니데스와 제논이 이오니아와는 차별화되는 그들만의 이론적 전통을 확립해나간 곳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소피스트』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주도적 물음에 의해 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이 대화편의 제목에서 암시되듯이 소피스트에 대해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217b)¹⁾이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 소피스트들

* 본고는 2012년 2학기 존재론 수업의 기말 보고서로 제출되었던 것이다.

1) 이후의 『소피스트』 원문 인용은 모두 『소피스트』, 플라톤 지음, 이창우 옮김, 이제이북스, 2011.에 그 출처를 둔다. 다만 옮긴이도 언급하고 있듯이 그리스어의 einai 동사가 갖는 애매성의 문제를 옮긴이는 대부분의 경우 존재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때에 따라 존재적/서술적 번역을 병치하거나

예컨대 프로타고라스나 고르기아스의 사상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작업이 아니라 도대체 그들을 아우르는 소피스트라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작업이다. 손님은 소피스트를 정확히 정의하기 위해 분할의 방법을 시도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분할의 방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피스트』의 또 다른 주도적 물음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이 우선해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파르메니데스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있지/…이지 않은 것이 어떤 점에서 있다/…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거꾸로 있는/…인 것이 어떤 식으로 있지/…이지 않다는 것을 결론으로 강제해야”(241d)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명되지 않으면 거짓, 허위의 문제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소피스트를 모상제작자로 정의하려는 분할의 방법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두 주도적 물음은 마치 액자식 구성처럼 배열되어 있다. 해서 손님은 소피스트를 정의하는 분할의 방법을 시도하던 중 있지 않음/…이지 않음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분할의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깨닫는다. 이러한 이유로 손님은 문제를 전환하여 파르메니데스와의 일종의 대결을 감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결 끝에 손님은 파르메니데스가 사유를 차단했던 있지 않음/…이지 않음이 어떤 점에서는 있다/…이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부친살해의 혐의를 쓰게 된다. 두 번째 주도적 물음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손님은 다시 분할의 논의로 복귀하여 소피스트를 정의하는데 성공한다. 본고에서는 『소피스트』의 액자식 구성에 따라 밖에서부터 점점 안으로 진입해 들어갈 것이다. 다시 말해 분할의 방법에서부터 거짓의 문제, 있지 않음/…이지 않음의 문제까지를 순서대로 다룰 것이다. 다만 『소피스트』 전체에 걸쳐서 이름, 말 그리고 사물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이 문제를 먼저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또한 모든 검토를 마친 후에는 『소피스트』에서 이루어진 있지 않음/…이지 않음에 대한 검토와 파르메니데스의 논의를 비교하여 손님이 쓰게 되는 부친살해의 혐의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서술적으로 해석하여 인용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영역 또한 병치할 것이다.

2. 이름, 말 그리고 사물

이름, 말 그리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사물은 『소피스트』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개념들이다. 여기에서는 이 개념들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피스트』의 전체 논의는 소크라테스가 손님에게 던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소피스트, 정치가, 철학자에 대해서 엘레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에서 『소피스트』의 논의가 시작된다. 이 질문은 테오도로스의 요구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화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한 종류로 아니면 두 종류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 이름이 셋이듯이 종류도 셋으로 구분하여 각 이름에 종류를 하나씩 붙였는지?”(217a)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질문은 이름과 사물에 대한 유의미한 규정을 이미 어느 정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질문에는 이름과 그 이름에 상응하는 종류는 구분될 수 있으며, 서로 이름이 다르더라도 같은 종류를 의미할 수가 있다는 점이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손님과 테아이테토스의 대화 속에서 거듭 확인된다. 손님은 소피스트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손님에 따르면 지금 우리에게 공유되고 있는 것은 오직 소피스트라는 이름뿐이지만 “항상 모든 사안에 있어서 토론 없이 이름만 관해 합의하는 것보다는, 토론을 통해 사태 자체에 관해 합의를 해야”(218c)한다.

따라서 이미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소피스트’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에 상응하는 종류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주도적 물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종류’라는 표현은 이름에 상응하는 대상에 대한 또 다른 추가적인 규정을 드러내 보인다. 이에 대해 검토하기 전에 먼저 손님이 ‘이름’이라는 개념을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하는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손님에 의하면 “음성을 통해 존재/…임(being)에 관해 지시하는 것으로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가 있”(261e)다고 한

다. 하나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동사이다. 그리고 동사는 이름이 지시하는 것의 행위를 지시한다. 예컨대 ‘사람이 달린다.’라는 문장을 보면 ‘사람’이라는 이름은 사람 즉 어떤 사물을 지시하고 ‘달린다’라는 동사는 이 사람의 달리는 행위를 지시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손님은 한 사람에 대해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를 언급하면서 이름이 가리키는 바에게 부여되는 색, 형태, 덕과 같은 것들도 이름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손님은 위의 예문에서 ‘달린다’와 같은 것들 또한 하나의 이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손님에게 이름이란 크개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언어적 표현들을 작개는 이 요소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어의 위치에 놓이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이름이 가리키는 바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예컨대 손님이 예로 드는 “테아이테토스가 앓는다.”와 같은 문장에서 이름은 테아이테토스라는 구체적 인물을 가리킨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좋은 것이다.”와 같은 문장에서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은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코 그것이 감각적인 사물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소피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피스트’라는 이름은 경우에 따라 프로타고라스나 고르기아스와 같은 개별 소피스트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들을 아우르는 소피스트라는 직업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소피스트’라는 이름은 소피스트라는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다. 『소피스트』의 첫 번째 주도적 물음이 겨냥하는 바는 바로 이것 즉 소피스트의 유(類)이다. 그리고 손님의 어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유(類)란 곧 형상과 상호교환 가능한 개념으로 나타난다.

‘테아이테토스’와 같이 고유한 구체적 대상을 지시하는 이름들을 논의에서 제외한다고 할 때, 이름과 같은 언어적 표현이 형상과 서로 상응한다는 언어관은 많은 것들을 함축한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해보겠지만 이러한 언어관은 형상에 대한 탐구가 그에 상응하는 이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수행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예컨대 어떠한 이름이 다른 이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탐구자는 이 두 이름이 같은 유(類)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소피스트’, ‘정치가’, ‘철학자’라는 이름들은 이러한 혐의를 쓰고 있는 이름들이다. 반면에 만약 두 이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탐구자는 이 두 이름에 상응하는 유(類)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관은 또한 다음을 함축한다. 손님은 말하기를 “이름과 동사를 이용해서 한 사물과 한 행위를 합쳐 하나의 진술을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262e)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이름과 동사를 결합함으로써 말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님에 따르면 이 말은 참과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고 한다. 이처럼 이름들이 서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관찰은 곧 형상들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손님은 “형상들 상호 간의 엮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이 생겼으니까요.”(259e)라고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언어관은 형상들의 결합 방식도 여러 가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모든 말에서 이름과 동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결합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도록 하겠다.

3. 분할의 방법

언어적 표현과 형상에 대한 이러한 예비적 고찰을 통해 손님의 다 음과 같은 말 즉 지금 우리는 소피스트에 대해서 그것의 이름에만 합의했을 뿐 사태에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지금 ‘소피스트’라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언어적 표현에 상응하는 유(類)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할 점은 비록 사람들이 ‘소피스트’라는 언어적 표현에 상응하는 유(類)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소피스트’라는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의가 전제되어 있어야만 한다

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소피스트’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농부나 낚시꾼을 소피스트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손님이 테아이테토스와 논의하면서 별다른 검토 없이 소피스트를 기술자로 놓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소피스트를 기술자로 놓을까요, 아니면 기술이 없는, 그러나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놓을까요?”(219a)라는 손님의 질문에 테아이테토스는 망설임 없이 소피스트는 기술자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손님 또한 이러한 테아이테토스의 대답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전개는 ‘소피스트’라는 이름의 일상적 언어 사용에 그 근거를 둔다. 즉 사람들의 일상적 언어 사용에 따르면 ‘소피스트’라는 이름은 결코 문외한에게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전개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손님은 일단 소피스트를 기술자로 놓은 다음에 분할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피스트를 정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분할의 방법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분할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할 때 손님은 무엇을 분할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분할하고 있는가. 손님은 소피스트를 기술자로 놓은 다음에 곧바로 “모든 기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219a)다고 하여 기술을 두 종류로 분할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분할의 방법에서 분할의 대상은 바로 기술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손님은 소피스트를 정의하려는 논의 속에서 갑자기 기술을 분할하기 시작하는 것일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손님은 소피스트를 기술자로 놓았다. 그런데 소피스트가 기술자라는 것은 곧 소피스트를 소피스트이게 하는 고유의 기술이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낚시꾼이 낚시꾼인 까닭은 낚시꾼이 낚시술에 능숙한 기술자이기 때문이며 화가가 화가인 까닭은 그가 회화술에 능숙한 기술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피스트는 이른바 소피스트술에 능숙한 기술자인 까닭에 소피스트일 것이다. 따라서 소피스트를 정의하는 문제는 소피스트술을 정의하는 문제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된다. 그렇다면 손님은 분할의 방법을 통해 기술을 분할하되 어떻게 분할하는가. 손님이 낚시술을 정의하기위해 분할을 행하는 과정을 관찰해보면 손님은 먼저 기술을 크게 둘로 즉 만드는 기술과 이미 있는 것을 말이나 행위를 통해 예측

하는 획득술로 구분한다. 그리고 획득술 중에서 예속술, 예속술 중에서 사냥술, 사냥술 중에서 동물 사냥술로 점점 좁혀 들어간다. 그리고 마침내는 낚시술이 남을 때까지 기술을 세분화하여 구분해나간다. 손님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논의의 방법은 지성을 획득할 목적으로 모든 기술들 중 동종적인 것과 동종적이지 않은 것을 파악하려 시도합니다.”(227b) 즉 분할의 방법은 같은 것들을 서로 모아서 같지 않은 것들과 구분한다. 그리고 논의의 주제가 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한데 같이 묶어 배제한다. 그러므로 분할의 방법을 통해 정의되는 낚시술이란 모든 기술들 중에서 제작술, 교환술, 경쟁술, 살아있지 않은 종에 대한 사냥술, 육지 동물사냥술, 새사냥술 등 낚시술이 아닌 기술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분할의 방법이 목적하는 바는 다른 기술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순수한 형태로서 기술을 정의하는 것이다. 예컨대 낚시술은 잡은 물고기를 통해 돈을 버는 기술도 아니고 잡은 물고기를 기르는 기술도 아니고 오직 물고기를 잡는 기술로서 정의된다. 이제 소피스트술도 순수한 형태로서 다른 기술들과 완전히 구분될 수 있도록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손님은 분할의 방법을 통해 소피스트술을 정의하기 위해서 두 개의 본을 차례대로 든다. 하나는 낚시꾼의 본이고 다른 하나는 화가의 본이다. 손님은 첫 번째 본을 통해 소피스트를 정의하는데 실패하며 두 번째 본을 통해서도 소피스트를 정의하는데 성공한다. 이러한 논의 맥락에서 본이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즉 이미 잘 정의된 기술이면서 동시에 소피스트술과 유사해 보이는 기술을 예시로 가져옴으로써 소피스트술에 대한 분할의 방향을 크게 결정하는 것이 본의 역할이다. 낚시꾼의 경우를 살펴보자. 손님은 낚시꾼과 소피스트가 모두 사냥꾼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족속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발견한다. 따라서 낚시꾼의 본은 소피스트술에 대한 분할을 사냥술에서부터 시작하도록 구획 지어준다.

그런데 손님의 분할은 실패한다. 손님이 소피스트에 대한 분할을 여섯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소피스트술을 젊은이들에 대한 사냥술, 탁월함에 관한 도매술, 소매술, 직접 만든 것을 파는 기술, 쟁론을 통

해 돈을 버는 기술, 논박을 통해 정화하는 기술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님이 언급하듯이 “하나의 기술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여러 가지를 아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런 나타나는 모습에는 건강하지 못한 어떤 점이 있”(232a)는 것이다. 한 낚시꾼은 낚시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잡은 물고기를 팔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낚시술이 물고기를 잡는 기술인 동시에 물고기를 파는 기술일 수는 없다. 낚시술은 오직 물고기를 잡는 기술일 뿐이다. 이처럼 기술은 오직 순수한 형태로서만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소피스트술에 대한 여섯 번의 분할은 손님이 소피스트술을 정의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분할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손님이 소피스트에 대한 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다. 본은 정의하려는 대상과 진정으로 유사성을 가질 때에만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본이 정의하려는 대상과 관련이 없다면 오히려 본은 혼동을 유발할 것이다. 손님이 낚시꾼의 본이라는 잘못된 본을 들게 된 이유는 아마도 손님이 소피스트의 드러나는 모습에만 집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여섯 번의 분할을 통해 명백해졌듯이 소피스트는 철학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 도시와 도시를 돌아다니”(216c)는 것이 분명하다. 단지 소피스트가 사냥꾼처럼 드러난다고 해서 소피스트술을 사냥술로서 정의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손님은 “그들에 관한 더 분명한 본을 들기로”(233d) 한다. 그리고 이 본은 단순히 소피스트의 드러나는 모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상에 관한 것이다. 손님은 소피스트가 다채로운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점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소피스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의 반박에 능하다고 하며 또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모든 것을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건전하게 반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 앎을 갖고 있어야 하고 따라서 모든 주제에 대해서 건전하게 반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주제에 대한 앎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소피스트는 젊은 사람들에게 모든 주제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건전하게 반박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므로 손님에 따르면 소피스트는 “모든 것에 관

련해서 어떤 가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진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233c) 명백하다. 이러한 실상에 맞추어 손님이 새롭게 제시하는 본은 바로 화가의 본이다. 화가는 하나의 기술 즉 회화의 기술을 통해 모든 것의 모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속일 수 있다. 회화술의 본에 따라 소피스트술 또한 말로 된 여러 모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기술로서 파악된다.

그러므로 회화술의 본에 따라서 손님은 이제 획득술이 아니라 제작술의 방향으로 분할을 해나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회화술은 획득술이 아니라 제작술이기 때문이다. 손님의 분할에 따르면 소피스트술은 만드는 기술 중에서 인간적인 기술, 그 중에서 사물 자체가 아니라 모상을 제작하는 기술, 그 중에서 유사 닮음 제작술, 그 중에서 다시 모사술, 그 중에서 다시 믿음에 의한 모사술, 그리고 모사술 중에서도 다시 위장모사술 아래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위장 모사술은 다시 두 가지로 분할이 된다. 공적인 모임의 대중 앞에서 위장하는 모사술과 사사로운 모임에서 위장하는 모사술로 말이다. 전자는 대중 선동가이며 후자가 바로 소피스트다. 따라서 손님은 회화술의 본을 두고 분할의 방법을 통해 소피스트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4. 거짓의 문제

이로써 『소피스트』의 외피에 해당하는 하나의 주도적 물음에 대한 답이 마련된 것이다. 즉 소피스트에 대해서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소피스트가 모상제작자라는 손님의 정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밝혔듯이 다음의 물음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즉 모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가능하기는 한 것이냐 하는 물음이 검토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는 『소피스트』의 내부에 해당하는 두 번째 주도적 물음 즉 어떻게 있지/…이지 않은 것이 있다/…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 관련된다. 4장과 5장에서는 파르메니데스와의 연관 속에서 모상, 거짓과 관련하여 정확히 무엇이

문제시되고 또한 이를 손님이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테아이테토스가 언급하듯이 모상이란 “참된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그와 같은 다른 것”(240a)을 뜻한다. 예컨대 거울에 비친 상도 모상이고 생화를 모방하여 만든 조화도 모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조화가 진짜 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꽃이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조화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짜인 것이고 따라서 거짓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상은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거짓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거짓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손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손님은 테아이테토스에 대한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을 논하는 맥락 속에서 테아이테토스에게 말하기를 “참인 진술은 당신에 관해서 있는/…인 것들을 있다/…이라고”(263b)한다. 반면에 손님은 말하기를 거짓인 진술은 “있지/…이지 않은 것들을 있는/…인 것들로서 말”(263b)한다고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빨간 사과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과는 빨간색이므로 이 사과에 관해서 빨강다고 말하는 것은 곧 빨간 것들을 빨강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빨간 것들이 빨강다는 이 말은 참인 말이다. 왜냐하면 …인 것들을 …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파란 것은 빨강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과는 파랑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사과에 관해서 파랑다고 말하는 것은 곧 파랑지 않은 것들을 파랑다고 말하는 것이며 이는 …이지 않은 것들을 …인 것으로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einai동사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의 be동사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의 einai동사에 대해서는 ‘있다’라는 존재적 해석과 ‘…이다’라는 서술적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거짓에 대한 손님의 설명을 ‘있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하여 존재적 해석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으며 ‘…이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하여 서술적 해석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조화나 사과의 예를 통해서 거짓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별다른 검토 없이 서술적 입장을 취하였다. 거짓의 문제

는 1차적으로는 존재/비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들었던 조화나 사과의 예시처럼 …임/…이 아님의 문제로 이해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함에 있어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유의할 만하다. 하나는 비록 서술적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존재적 해석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빨갛지 않다는 서술적 표현을 빨강의 속성이 있지 않다는 존재적 표현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이해방식이 직관적인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복잡화된 것인 만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서술적 해석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술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곧 『소피스트』에서 나타나는 모든 einai동사에 대해서 일관되게 서술적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강한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 einai동사가 존재적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 취한 입장은 이런 경우조차 서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술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해석적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술적으로 해석해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손님에 의해 정식화되는 두 번째 주도적 물음 즉 “거짓이 정말로 있다/…이라는 것”(236e)을, 다시 말해 “있지/…이지 않은 것이 있다/…이다”(237a)라는 것을 해명해야 하는 물음의 경우가 그러하다. 존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 물음은 어떻게 거짓이 있을 수 있는지를 해명해야 하는 물음이 된다. 그런데 서술적으로 해석되면 어떻게 거짓이 …일 수 있는지를 해명해야 하는 물음이 되는데 이 경우는 존재적 해석에 비해서 해석의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일단 거짓이 …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존재적 해석의 경우에 비해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이 물음이 문법적으로 볼 때 문장으로서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손님이 이러한 두 번째 주도적 물음을 파르메니데스와와의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이 물음에 대한 서술적 해석의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손님은 소피스트를 모상제작자로 정의하는 분할의 방법이 성공하

기 위해서는 먼저 모상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밝혀져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거짓이 …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지 않은 것이 …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의 문제이다. 손님의 고향인 엘레아의 철학자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이지 않은 것들이 …이라는 것이 결코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손님은 “그 어떤 점에서도 …이지 않은 것”(237b)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파르메니데스의 경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손님에 따르면 어떤 점에서도 …이지 않은 것이란 언표가 불가능하다. “…인 것으로, 어떤 다른 …인 것이 덧붙여질 수 있”(238a)는 반면 …이지 않은 것에는 어떤 …인 것도 덧붙여질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도 …이지 않은 것’이라고 언표 할 때 이 말은 이미 그것을 하나의 어떤 것으로서 언표를 하고 있는 셈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어떤 점에서도 …이지 않은 것이란 언표가 불가능하다. 손님은 더 나아가 ‘어떤 점에서도 …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영혼 안에서 음성 없이 생겨나는, 영혼 자신과의 대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불렀다는 점만 제외하고”(263e)는 말과 생각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손님은 바로 이 점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모상은 거짓으로서 …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지 않은 것이란 어떠한 규정성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표도 사유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소피스트를 모상 제작자라고 정의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게 된다. 왜냐하면 소피스트를 규정하면서 소피스트가 제작하는 것이 모상이라고 언표하는 것도 사유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피스트가 전적으로 교활하게도 길 없는 장소로 숨어 버렸다”(239c)는 말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소피스트는 분할 과정에서 모상제작자라는 항목으로 숨어들었다. 그런데 손님은 소피스트가 모상제작자라는 항목에 숨어있음을 확신하면서도 ‘소피스트는 모상제작자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맥락 속에서 손님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언어적 표현이다. 즉 소피스트가 제작한 것들에 관해서 ‘이것은 모상이다, 거짓이다, …이지 않은 것이다.’라는 언어적 표현이 가능해야 한다.

여기에서 ‘거짓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해명되어야 할 두 번째 주도적 물음의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거짓이 …이다’라는 표현은 ‘거짓이다’라는 표현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즉 …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성을 덧붙이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이다. 그리고 이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가능해지는 표현 그리고 손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표현은 바로 ‘거짓이다’라는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이 …이다’라는 표현에 대한 서술적 해석은 이 표현을 ‘거짓이다’라는 언표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보다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짓이 …이다’라는 표현을 ‘거짓이 거짓이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6장에서 다시 시도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전개될 논의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성도 덧붙일 수 없음이 분명한 ‘어떤 점에서도 …이지 않은 것’과는 구분되는 다른 ‘…이지 않은 것’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이미 모상이 무엇이냐는 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참된 것과 다른 것이라는 테아이테토스의 대답에서 어느 정도 암시가 되고 있다. 즉 다른 것으로서의 …이지 않은 것이 바로 이제부터의 손님의 논의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부상할 것이다.

5. 형상들의 결합 (1)

손님은 소피스트를 모상제작자로 정의하기 위해서 …이지 않은 것들이 …이라는 것이 강제되지 않도록 하라고 한 바 있는 파르메니데스와의 대결을 감행한다. 그리고 손님이 파르메니데스의 금지 명령을 비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형상들 간의 결합이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손님은 곧바로 형상들이 서로 결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손님은 앞선 철학자들의 견해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그들의 견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방법으로서

형상들 간의 결합이라는 개념이 요구되도록 논의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다소 지루할 수 있겠지만, 손님의 논의를 차례대로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앞선 철학자들의 견해가 어느 지점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또한 형상들의 결합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떻게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손님은 …인 것들에 대한 앞선 철학자들의 논의를 검토하는데 먼저 …인 것들의 수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다. 해서 가장 먼저 …인 것들이 둘 즉 더움과 차가움이라고 했던 철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한다. 이 검토과정에서 더움, 차가움과는 구분되는 …임을 놓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더움도 …이고 차가움도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라는 것이 이 둘과 독립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이라는 점에서 같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반면에 …임이 더움, 차가움과 구분되는 제 3의 것으로 놓인다고 한다면 이제는 도리어 어떻게 더움과 차가움이 …인 것이라는 점이 설명될 수 있을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 자리에서 명시되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움, 차가움이 …임과는 다른 것이면서 …임과 결합한다는 개념 즉 형상들의 결합이라는 개념에서 찾아지게 된다.

다음으로 손님은 …인 것들이 하나뿐이라고 주장했던 철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앞서 2장에서 검토한 바 있는 이름과 사물의 관계가 문제시된다. 즉 하나 뿐인 …인 것은 …이면서 또한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다’라는 이름과 ‘하나’라는 이름이 같은 사물을 가리키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만약 이름과 사물이 같은 것으로 놓는다면 이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며 따라서 해결방법은 이름과 사물을 구분하되 …인 것이 하나뿐이라는 견해를 철회하는 것이다. 손님은 이어서 …인 것들이 하나뿐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또 다른 비판을 가한다. 즉 하나 뿐인 …인 것이 하나이자 전체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인 것이 오직 하나뿐이므로 그 …인 것은 곧 전체다. 그런데 전체인 것은 부분을 가진다. 그리고 손님이 밝히듯이 “진정으로 하나인 것은 전적으로 부분을 갖지 않는 것으로 말해야”(245a) 한다는 점에서 …인 것이 하나이면서 전체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역시 형상들 간의 결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이다. 손님은 “있는/…인 것은 하나라는 겪음을 가짐으로써 하나이자 전체로 있게/…이게 되나요?”(245b)라고 물어 결합의 개념을 ‘겪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만약 …임과 하나, 전체가 모두 …인 것들이며 서로 결합함으로써 …임이 하나이자 전체가 될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은 해결될 것이다.

다음으로 손님은 이른바 “신들과 거인들의 전쟁”(246a)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철학자 부류의 상반되는 견해를 즉 …인 것들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혹은 형상들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한다. …인 것들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에게는 정의나 지혜와 같은 비물질적인 것들의 현존 혹은 부재를 통해 누군가의 정의로움, 지혜로움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어떤 다른 것에 작용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아주 사소한 것에 의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단 한 번일지라도 작용을 겪는 것이든, 모두가 전적으로 있/…이”(247d)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인 것들이 형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에게는 비록 그것들이 “동일하게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동일한 것과 관련”(249b)한다는 점에서 정지해 있어야 하지만 인식된다는 점에서는 운동할 수밖에 없음을 들어 “있는/…인 것과 만물은 둘 다라고, 즉 운동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과 운동되는 모든 것이라”(249d)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결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형상들은 어떻게 운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지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또한 앞에서 하나와 전체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형상들 간의 결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즉 운동과 정지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른 형상들과 결합함으로써 그 형상이 운동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손님은 이러한 검토를 마치면서 형상들 간의 결합이라는 개념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다. 손님이 먼저 제시하는 것은 일상적 언어 사용에 기반한 근거이다. 즉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 확실히 여러 이름들로 부르면서 말”(251a)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이다’ 또는 ‘좋은 것이 좋다’ 이외에도 ‘사람이 좋다’와 같은 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형상들이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시사된다. 그리고서 손님은 형상들의 결합과 관련된 세 가지 가능성 즉 모든 형상이 서로 결합하는 경우, 어떤 형상들이 서로 결합하는 경우, 어떤 형상도 서로 결합하지 않는 경우를 검토한다. 만약 어떤 형상도 서로 결합하지 않는다면 말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 속에 이미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논박자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모든 형상이 서로 결합한다면 그 때는 서로 가장 반대되는 운동과 정지가 결합하게 될 것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마지막 가능성 즉 최소한 어떤 형상들은 서로 결합한다는 가능성만이 남게 된다.

이러한 오랜 검토 과정을 거쳐 드디어 손님은 서로 결합하는 다섯 개의 유(類)를 놓기에 이른다. 그 유(類)는 바로 …임, 운동, 정지, 동일함, 다름이다. 먼저 운동과 정지를 살펴본다면 이 둘은 서로 가장 반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운동과 정지는 앞서 신들과 거인들의 전쟁에서 밝혀졌듯이 모든 형상들이 인식되거나 인식되지 않을 때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두 형상은 중요한 형상으로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임은 결코 운동이거나 정지일 수 없는 제 3의 유(類)로서 놓인다. 이를 도출하는 손님의 추론 방식은 귀류법적인 전개 방식을 따른다. 운동과 정지는 서로 가장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임이 운동 혹은 정지와 동일한 유(類)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운동과 정지는 서로 섞이게 된다. 왜냐하면 운동과 정지는 모두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은 제 3의 유(類)로서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추론 방식이 동일함과 다름에게도 적용된다. 동일함과 다름은 운동 혹은 정지와 동일한 유(類)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손님은 “운동과 정지에 관해 공통으로 부르는 것, 이것은 둘 중 어떤 것일 수도 없”(255a)다고 하여 동일한 추론 방식으로 그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렇다면 이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임과 동일함, 다름의 관계이다. 손님은 이 문제를 그들의 이름이 사용되는 방식에 근거해서 해결한다. 우리의 일상적 언어사용을 관찰해보면 ‘…이다’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다’ 혹은 ‘다르다’라는 이름을 대신 사용할 수는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앞

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두 이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두 이름에 상응하는 형상이 서로 다른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과 동일함, 다름은 서로 구분되는 유(類)로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다섯 유(類)들이 서로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운동과 동일함의 경우를 살펴보자. 운동은 동일함과는 다른 유(類)이기 때문에 ‘운동은 동일함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동일함을 겪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운동은 자신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름은 …임과는 구분되는 유(類)지만 …임을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바로 『소피스트』의 두 번째 주도적 물음이 해결된다. 다름은 ‘다르다’라고 언표되기도 하지만 ‘…이지 않다’라고 언표되기도 한다. 예컨대 빨간 것은 파란 것과 다르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빨간 것은 파랑지 않다.’라고 언표한다. 그리고 이 때의 ‘…이지 않다’라는 언어적 표현은 단지 파란 것에 대한 대비로서 파란 것과 다른 것을 의미한다. 손님은 바로 이것 즉 다름으로서의 …이지 않음이 …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이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덧붙여, 파르메니데스에 의해서 금지된 …이지 않음이 다름의 의미로서 구출된다는 점에서 또한 einai동사에 대한 서술적 해석이 보다 설득력있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거짓의 문제가 그러했듯이 다름의 문제 또한 존재/비존재의 문제이기 보다는 …임/…이지 않음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6. 형상들의 결합 (2)

그런데 여전히 해명이 불충분한 문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형상들의 결합과 관련해서 …임과 결합하여 …이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이 언어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이며 또한 형상들의 결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이 중 전자의 것은 앞선 4장의 말미에서 간략하게 논한 후에 이후의 추가적 논의를 약속했던 것이다.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운동과 정지의 섞임과 관련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손님이 여러 번 언급하듯이 운동과 정지는 서로 가장 반대되는 것이며 따라서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리고 둘의 이러한 상극성은 …임을 제 3의 유(類)로 놓는 추론에서 적극적인 근거로 활용된다. …임이 운동과 하나라면 …임이 정지에 섞이듯이 운동이 정지에 섞일 것인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개진되는 논의 속에서 손님은 제시되는 다섯 유(類)가 모두 서로 섞일 수 있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특히 손님의 “그렇다면 만약 운동 자체가 어떤 식으로 정지를 나누어 가진다면, 운동이 정지해 있다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겠죠?”(256b)라는 발언은 운동과 정지가 서로 섞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근거로 여겨진다. 그런데 만약 운동과 정지가 정말 서로 섞일 수 있다면 앞선 논증 즉 …임을 운동, 정지와 다른 제 3의 유(類)로 놓는 논증이 무력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앞선 논증의 근거가 운동과 정지가 서로 섞일 수 없다는 것이었던 반면 256b의 문장은 운동과 정지가 서로 섞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학자들은 256b의 문제적 문장에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 보충을 시도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텍스트 보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256b의 문장과 앞선 논증 즉 …임을 제 3의 유(類)로 놓는 논증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형상들의 결합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서는 운동과 정지는 서로 섞일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인정한다. 따라서 운동의 형상이 정지할 수 있으며 또한 정지의 형상이 운동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임이 운동, 정지와 섞이는 방식이 운동과 정지가 서로 섞이는 방식과 다르다고 함으로써 …임을 제 3의 유(類)로 놓는 논증 역시 고수할 수가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운동은 정지와 섞이기는 하되 …임이 정지와 섞이는 방식으로 정지와 섞일 수는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주장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형상들이 결합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어야만 함이 당연하다. 이에 대해서는 2장의 말미에서 예고한대로 이름들이 결합하여 말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방식에 근거하여 형상들의 결합 방식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아름다움의 형상을 주어로 하는 두 진술을 제시할 것인데 다음과 같다. 하나는 다음과 같다. ‘아름다움은 운동한다.’ 이 진술에서 이름은 ‘아름다움’이고 동사는 ‘운동한다’이다. 따라서 아름다움의 형상에 운동의 형상이 서로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진술이 갖는 속성 즉 참과 거짓은 조건적이다. 예컨대 만약 아름다움이 지성에 의해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진술은 참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아름다움이 인식되고 있지 않고 정지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진술은 거짓일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움과 운동은 항상 결합해있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특정 조건 하에서만 이 진술의 속성이 참이라는 것은 곧 특정 조건 하에서만 두 형상이 결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진술은 다음과 같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다.’ 이 진술에서 이름은 ‘아름다움’이며 동사 역시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이 진술의 속성은 무조건적으로 참이다. 이 경우에 아름다움의 형상은 다른 어떤 형상과 결합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어떤 형상하고도 결합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이 경우에도 아름다움의 형상은 다른 어떤 형상과 결합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 진술은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이 진술은 아름다움과 …임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동사 자리에 있는 ‘아름다움이다’라는 언어적 표현에서 아름다움의 형상과 …임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진술은 ‘아름다움이다’라는 언어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말해 아름다움의 형상과 …임의 형상이 결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곧 아름다움의 형상이 규정적임을 다시 말해 실제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음을 뜻한다. 두 번째로 이 진술은 동어 반복적 문장으로서 아름다움의 자기 동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손님은 앞선 추론에서 …임과 동일함이 언어적으로 사용될 때 모든 경우에서 서로의 이름으로 대신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근거로 하여 …

임과 동일함이 서로 다른 형상임을 밝혀낸 바 있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손님의 작업이 …이지 않음의 여러 의미 중에서 다름으로서의 …이지 않음의 의미를 따로 구분해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듯이 동일함 역시 …임의 여러 의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서 다름의 의미로 ‘…이지 않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듯이 동일함의 의미로 ‘…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임과 동일함이 모든 경우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언어적으로 상호교환 가능한 몇몇 경우가 있다. 자기동일성을 지시하는 …임은 바로 그 유력한 사례이다. 그리고 지금의 예문이 보여주듯이 자기동일성은 규정성의 내포와 불가분 관계를 맺고 있다. 자기 동일하다는 것은 동일할 수가 있는 자기의 내용 즉 긍정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전제하고 있으며 반대로 실제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규정되었다는 것은 곧 그 규정된 바에 의해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 어떤 점에서 …이지 않은 것’은 도대체가 …이지 않으므로 자기와 동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다’와 같은 자기 동일적 문장은 필연적으로 참이고 따라서 어떤 형상, 지금의 경우에서는 아름다움의 형상이 …임과 필연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형상은 최소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조건적인 결합이다. 아름다움의 형상이 운동하느냐 정지하느냐의 경우가 그러하다.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인 결합이다. 아름다움의 형상과 …임의 결합이 바로 그러하다. 이때 …임의 결합이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규정성을 내포하게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아름다움의 경우에는 ‘아름다움이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결합이 없이는 형상은 도대체 형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형상은 어떠한 규정성을 가짐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따른다면 운동, 정지의 형상은 운동임, 정지임이라고 불려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바로 서술적 입장에서 해석하는데 곤란

을 겪었던 ‘거짓이 …이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앞서 4장의 말미에서 논하였듯이 손님이 논의 상 목적하는 바는 소피스트의 제작물에 대해서 그것이 ‘모상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모상 그리고 거짓이 …임이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거짓이 …이다’라는 표현은 ‘거짓이다’ 또는 ‘거짓이 거짓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본고의 서술적 해석이 취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7. 부친살해의 혐의

그렇다면 손님에 의해서 가능해진 언명 즉 ‘…이지 않은 것이 …이지 않은 것이다.’라는 언명은 손님이 우려하듯이 파르메니데스에 대한 부친살해를 의미하는 것일까. 손님은 다름으로서의 …이지 않음에 대한 기나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누구도 우리에게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이지 않은 것을 …인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보여 준다고 그러고 나서 이 반대되는 것이 …이라고 우리가 감히 주장한다고 말입니다.”(258e) 여기에서 손님은 …임과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이지 않음 그리고 …임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이지 않음을 구분하고 있다. 이 둘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전자의 것은 4장에서 소개된 바 있는 ‘그 어떤 점에서도 …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에 대해서는 언표도 사유도 불가능하다. 그것에게 어떤 …인 것도 덧붙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후자의 것은 손님이 이제까지 논한 다름으로서의 …이지 않음을 뜻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름은 …임의 몫을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손님은 …이지 않음에서 ‘그 어떤 점에서도 …이지 않은 것’은 언표할 수도 사유할 수도 없는 상태로 둔 채 다름으로서의 …이지 않음에 대해서만 그 언표 가능성과 사유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파르메니데스는 …이지 않음에 대해서 어떻게 논하고 있는가. 파르메니데스는 “왜냐하면 있지/…이지 않다 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사유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DK28B8)²⁾라고 하여 …이지 않음이 언표 불가능하고 사유 불가능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만약 파르메니데스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einai동사에 대한 서술적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그가 제시하는 두 길 중 …이다 라는 길은 지성에 의해서라야 파악할 수 있으며 영원불변하는 규정성을 가진 개념적 실체들에 대한 탐구의 길을 의미할 것이다. 반면에 두 길 중 나머지 하나인 …이지 않다는 길은 여전히 감각적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유의 길이기 는 하지만 도저히 사유가 닿을 수 없는 다시 말해 어떠한 규정성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전혀 배움이 없는 길을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소피스트』의 손님이 논하고 있는 다름으로서의 …이지 않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오래전에 작별을 고했”(259a)다고 하는 ‘그 어떤 점에서도 …이지 않은 것’이야말로 파르메니데스적 의미에서의 …이지 않다는 길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손님은 파르메니데스의 금지를 어기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파르메니데스의 금지는 도대체가 어기려고 해도 어길 수가 없는 성질의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손님이 보여주듯이 그 누구도 도대체 규정되지 않은 …이지 않음에 대해서는 아무리 언표하려고 해도 언표할 수가 없으며 사유하려고 해도 사유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손님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에서 파르메니데스를 수용하고 있으며 또한 파르메니데스의 논의를 발전시켜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파르메니데스의 여신이 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신은 말하기를 “다만 나로부터 말해진, 많은 싸움을 담은 테스트를 논변으로 판가름하라.”(DK28B7)라고 한다. 이는 곧 여신이 하는 말이라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라는 언명이다. 『소피스트』에서 엘레아의 손님이 보여주는

2) 지금부터의 파르메니데스 원문 인용은 모두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탈레스 외 지음, 김인곤 외 옮김, 아카넷, 2005.에 그 출처를 둔다.

태도는 파르메니데스의 이러한 언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파르메니데스를 포함한 선배 철학자들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드러내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파르메니데스의 논의를 서술적으로 이해한다면 앞서 밝혔듯이 첫 번째 탐구의 길은 곧 형상들에 대한 탐구의 길로서 이해된다. 그런데 형상들에 대한 탐구의 이 길은 이미 모상의 경우가 일으키는 것과 같은 문제점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단편 8의 50행 이후부터 개진되는 가사자들의 의견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빛과 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빛과 밤은 서로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정반대인 것들을 서로 가까이 놓고 고려를 할 때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즉 빛은 빛이라는 점에서 …이지만 밤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정반대의 관계에 있는 모든 형상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는 파르메니데스에 의해서는 검토되지 않고 『소피스트』에서 손님이 의해서야 비로소 충분히 검토됨으로써 해결된다. 즉 여기서의 …이지 않음이란 다름의 의미를 갖는다는 방식으로 말이다. 따라서 손님은 파르메니데스의 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말할 수 있다.

8. 나가며

지금까지 『소피스트』의 두 가지 주도적 물음 즉 소피스트를 정확히 무엇이라고 정의해야할지의 물음과 …이지 않음이 …이라는 점을 어떻게 정당화해야할지의 물음이 어떻게 해명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소피스트』의 구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도적 물음이 『소피스트』의 바깥부분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두 번째 주도적 물음이 『소피스트』의 안쪽부분에서 검토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성에 따라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구성하였다. 첫 번

째 주도적 물음에 대해서 손님은 분할의 방법과 회화술의 본을 통해 소피스트술을 정의한다. 손님에 따르면 소피스트는 참된 지식이 아니라 거짓된 지식을 갖고 있는 모상제작자이다. 그러나 소피스트는 모상제작자라는 이러한 정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물음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두 번째 주도적 물음과 관련되는 것이다. 두 번째 주도적 물음을 검토하기 위해 손님은 형상들의 결합과 다름으로서의 …이지 않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온다. 손님에 의하면 다름은 …이지 않음이지만 …임과 결합함으로써 …이게 된다. 한편으로 형상들 간의 결합과 관련하여 …임이 결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운동과 정지는 서로 결합할 수 있는지와 같은 의문에 대해서는 형상들 간의 결합 방식이 다양할 수가 있다는 방식으로 나름의 설명을 제공해보고자 하였다.

『소피스트』에서 엘레아에서 온 손님은 언어와 그 언어에 상응하는 형상에 대한 그 이전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던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논의는 추상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탓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어적 표현의 일상적 사용에 근거해서 그에 상응하는 형상들에 대한 통찰을 얻는 언어철학적 방법이나 형상들이 서로 결합한다는 개념, …임과 동일함, 다름이 구분된다는 개념들은 독자들을 끌어당기는 상당한 철학적 매력을 지닌 것들임에 틀림없다. 분명 『소피스트』 논의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고에서는 형상들의 결합과 관련하여 형상들의 결합방식을 둘로 나누고 …임의 결합에 특별한 성격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임의 형상이 다른 형상과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보다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완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그 외에도 부족한 점이 많다. 예컨대 형상들의 결합을 통해 생겨나는 “말은 있는 유(類)들 중 어떤 하나라는”(260a) 손님의 발언도 본고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숙고해볼만한 철학적 주장이다. 그리고 『소피스트』에서 개진되는 형상들의 결합이라는 아이디어가 형상들의 분류라는 이전 플라톤의 입장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 어떤 유

의미한 사고의 운동을 함축하는지도 탐구해볼만한 문제이다. 산적해 있는 부족한 점은 곧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를 의미한다. 앞으로 『소피스트』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또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소피스트』, 플라톤 지음, 이창우 옮김, 이제이북스, 2011.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탈레스 외 지음, 김인곤
외 옮김, 아카넷, 2005.

White, N. P. 1993. *Sophist*. Hackett Publishing Company.